

## 보도자료

**ifez** 인천경제자유구역  
Incheon Free Economic Zone

보도분류	브리핑( ) 보도자료 제공( ✓ )
보도일시	2021. 6. 9.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작 성 과	투자유치기획과
담 당	과장 정경원, 정주지원팀장 김종철, 담당 신환희 (032-453-7355)

### “인천에서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외국인은 바로 나”

인천경제청, ‘제1회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본선 대회’ 개최  
평차추안 씨 대상 등 총 6명 수상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8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「2021년 IFEZ 한국어 말하기 본선 대회」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.
- 이번 대회는 인천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공감하고 갖고 싶은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. 또한 IFEZ에서 주최하는 첫번째 말하기 대회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는 평가다.
- 이번 대회에는 모두 19개국 36명의 외국인이 참가했으며 5월 예선을 통과한 12명이 이번 본선에 진출했다.
- 본선 진출자들은 ‘내가 경험한 IFEZ, 내가 경험한 인천’과 ‘자유 주제’ 중 한 가지를 선택, 5분씩 발표했다.
- 심사위원들은 △표현력 △내용 구성 △유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1명, 우수상 2명, 장려상 3명을 선정했다.
- 대만에서 온 평차추안 (Feng Chia Chuan) 씨가 ‘미나리 향기 나는 나의 인천 생

활’을 발표, 대상을 받았다.

- 우수상은 미국에서 온 킨 무라카와 (Quinne Murakawa) 씨와 파키스탄에서 온 투바 마지드 (Tuba Majid) 씨가, 장려상은 중국에서 온 조학비(Zhao Xuefei) 씨, 터키에서 온 펠린 악카야(Pelin Akkaya) 씨, 일본에서 온 치바 후미(Chiba Fumi) 씨가 각각 수상했다.
-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“인천이 외국인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한국이자 세계인을 맞이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듯,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이 한국과 여러분 나라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 주길 바란다” 며
- “앞으로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어로 하나 되는 이런 뜻깊은 자리가 자주 마련되도록 힘쓰겠다” 고 밝혔다.
- 한편 인천경제청은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한국 정착 지원의 일환으로 IFEZ와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총 12개 반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. 올해만 300여명의 외국인이 수강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.